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2019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고 정 미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지도교수 최 현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7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고 정 미

고정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정 종 원  (인)

심사위원 : 최 현 주  (인)

심사위원 : 신 지 영  (인)

2019년 7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문제	7
II. 이론적 배경	8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8
2. 자기에	10
3. 대인관계문제	15
4. 자기자비	17
III. 연구 방법	21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21
2. 측정도구	22
1) 의존지향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척도	22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23
3) 대인관계문제 척도	25
4)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26
3. 분석방법	27
IV. 연구결과	28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28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에,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	30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34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	37
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40
5-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40
5-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43
V. 논의 및 제언	47
1. 결과에 대한 논의	47
2. 연구의 의의	53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54
참고문헌	55
부 록	67
ABSTRACT	79

표 목 차

<표 1>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14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DAPCS) 척도 하위요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	23
<표 4>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4
<표 5>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5
<표 6> 자기자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26
<표 7>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29
<표 8>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30
<표 9>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간 상관표 ..	31
<표 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	35
<표 11>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36
<표 1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38

<표 13>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39
<표 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42
<표 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45
<표 16>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46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	7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34
[그림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37
[그림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41
[그림 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43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 2, 3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의존지향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척도, 내현적 자기애 척도,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대인관계문제 단축형 척도를 포함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05건의 자료를 SPSS 21.0과 Hayes(2018)의 The PROCESS macro 3.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유의한 상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는 변인들 간 서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자기자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와 각각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자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긍정적 하위요인/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더 발생함을 확인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효과적인 상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적응적인 특성을 가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자비 수준의 증진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상담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청소년의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일생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여러 형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사회에 소속되어 성장해 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개인의 적응과 정체감 형성,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Gazda, 1973). 대인관계는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시기에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Erikson(1963)은 심리사회적발달단계에서 청소년기(12~19세)는 자아정체감과 역할혼미를 경험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확립하고 정체감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이 때 정체감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방황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된다(이성미, 2017). 청소년 시기는 정신적으로도 보다 성숙해짐과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도 더 자라기 시작한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의 자녀들은 독립성과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탐색하고 실행하려 한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고등학교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박은희, 2015; 정진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의 자기 표현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가 죄의식 등을 느끼도록 하는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개인적, 심리적 영역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장경문, 2007). 점차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율과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통제하고자 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Barber, 1996).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는 입시 위주의 학업과 본격적인 진로 고민으로 인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중되는 시기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욕구와 부모의 의도대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구 사이에서 청소년들은 상당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성연, 이은경 2010; 이호석 2016).

2017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3세~24세의 우리나라 청소년 31.8%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1/3 가량의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데 특히 심리적 거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기대하는 바가 다를 때 자녀는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선행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문제는 더 나타나고 부모의 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정진희, 2016; 한은진, 2015). 이외에도 부모의 과도한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이호석, 2016, 하현재, 2017).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들의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애를 들 수 있는데, 자기애적 성격(narcissism)은 자기과정적이고 자기몰두적인 경향이 강해 관심이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보아, 2000). 즉 이들의 타인에 대한 생각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며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거나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자기에 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발달시기 중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이세연, 2008).

자기에 성향은 드러나는 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로 구분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Atlas & Them, 2008; Wink 1991). 외현적 자기에(overt narcissism)는 거대하고 과장된 자가지각과 자기과시 등의 오만한 태도가 주된 특징으로 보이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는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에적인 성격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으나 겉으로는 자기에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타인의 반응, 특히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음이 많아 과도하게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 등을 불편해 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는 모습, 또는 창피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려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낀다(권석만, 한수정, 2000).

Kernberg(1975)는 청소년의 자기에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내용을 제기하였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냉정하고 애정결핍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정서적으로 굶주리게 되어 자기에적인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보았다. 자녀는 부모를 위협적으로 느끼지만 부모의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의 측면을 찾는 것이 자녀의 유일한 방어책이 되어, 웅대하고 과장된 자기를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홍영미, 2007). 자녀들의 독립적인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고 죄의식을 유발하는 심리적 통제가 자기에를 유발하는 변인이라는 경험적 연구들은 Kernberg(1975)의 주장을 입증한다(김계령, 1997; 김은영, 1996; 마혜정, 2004; Fukunishi, Nakagawa, Nakamura, 1996; 윤언정, 2009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의 자기에 발달은 정상과 병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정상에서 병리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자기에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다(Bleiberg, 1994). 이런 이유로 청소년의 자기에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자기에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안봉화, 2011). 그러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에의 관계를 확인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는 주요 발달 과제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평가를 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데(김신실, 2014), 이 때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수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자비’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Neff, 2003; Neff, Hseih & Dejittthirat, 2005; Nolen-hoeksema, 1991; 송혜현, 2017에서 재인용).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내담자의 자원, 강점 등 적응적 특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윤성민, 2011). 그런 측면에서 최근 심리적 건강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으로 제시되는 자기자비는 임상적 개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범진단적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박세란, 이훈진, 2015; MacBeth & Gumley, 2012).

자기자비란 개인이 고통에 처했거나 부적절감의 인식, 실패를 경험할 때 자기를 비난하거나 주어진 고통을 무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돌아보는 온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Neff, 2003a). 즉, 자기를 향한 자비를 의미하며, 온정, 연대감, 관심으로 괴로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과 관련 있다(최서연, 최윤정, 2016). 자기자비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미선(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인 자기친절, 고립, 마음챙김이 조절효과를 보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자기자비 향상을 위한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박세나(2015)는 고등학생의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에서의 자기자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취약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자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취약성이 있는 고등학생이 대인관계문제를 보일 경우 우울취약성 자체에 대한 개입과 자기자비의 매개를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송혜현, 2017)과 대인관계 유능성(최하나, 2018)에서 자기자비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자비가 고통스럽고 힘든 사회적 사건을 경험한 후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Leary, Tate, Adams, Batts Allen & Hancock, 2007).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자비는 긍정적 자기개념과 강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임상적으로 유용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최하나, 2018).

자기자비에 대한 관심은 점차 대인관계에서의 역할로 확대되어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Neff & Beretvas, 2013; Yarnell & Neff, 2013).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진실되고 자기 자신의 정당한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더 큰 관계적 안녕감을 경험하고(Yarnell & Neff, 2013), 이성관계에서 독립적이며,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은 덜 하는 반면에 더 수용적이고, 상대방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람으로 상대에게 평가된다(Neff & Beretvas, 2013). 또한 의미 있는 대인관계 경험은 자기자비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경희, 이희경, 2015; 안하영, 2019).

14~17세의 자기 자비 수준이 초기 성인의 자기 자비 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자기자비에 대한 이른 개입은 부정적인 자기관이 성인기로 이어지기 이전 10대 청소년을 위한 중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Neff & McGehee, 2010).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현재 그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들은 이후 성인기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정연홍, 2007; 송혜현, 2017).

자기 자비는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며, 이는 상담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초점이 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Seligman, 1995). 그러나 최근 자기 자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기자비와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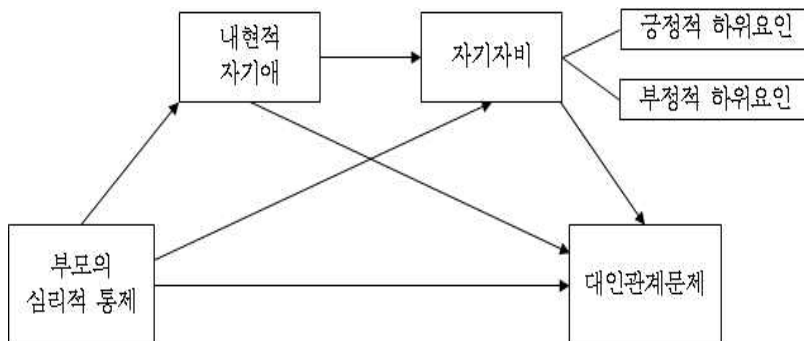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적응적인 특성인 자기자비를 대인관계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밝혀낸다면, 부모의 양육태도의 바른 인식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보충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와 관련한 실제 상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상담 개입 방안의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내현적 자기애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3. 자기자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긍정적 하위요인/부정적 하위요인)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출생 후 맺게 되는 최초의 대인관계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전반적인 삶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Schaefer(1959)는 ‘애정-거부’, ‘자율-통제’라는 2가지 축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그중에서도 통제(소유, 보호)를 통하여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침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부정적 양육방식 중 하나로 설명하였다(정진희, 2016). 부모의 지지는 애정, 수용, 온정, 반응적 행동 등의 단일 구성 요소 개념으로 구성되어 일관적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깊은 연관성을 언급하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반면, 부모의 통제와 관련된 연구는 훈육, 강압, 죄책감 유도, 감독, 요구, 제한, 애정철회 등의 다양한 구성 요소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연구결과가 비 일관적이었다(Barber, 2002). 통제에 관한 부모의 양육 방식의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Barber(1996)의 주장에 따라 부모 통제는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분리된 개념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이슬, 2015; 신수지, 2016).

행동적 통제는 부모가 확고하고 일관된 규칙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규제(Barber, Olsen, & Shagle, 1994)하고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준수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장경문 2007). 처벌과 보상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는 행동적 통제에는 엄격함이 수반되지만, 동시에 안정감을 제공하므로 자녀의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Smetana & Daddis, 2002).

반면,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자녀의 사고과정, 정서, 자아, 애착, 자기표현 등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자녀

의 개성발달, 부모와의 개별화, 자아발견의 기회, 정체성 발달을 침해하는 양육행동의 한 측면이다. 부모가 바라고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의 자기표현을 존중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고 자녀가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 통제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개인적, 심리적 영역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장경문, 2007). 이는 부모의 기준대로 자녀의 행동과 정서를 조종하는 것으로,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과 관련된다(Barber, 2002).

이후, 기존에 단일차원으로 측정해오던 심리적 통제를 Soenens, Vansteenkiste 와 Luyten(2010)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부모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행하는 통제적 양육방식이다. 이러한 부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의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부모가 높은 성취를 기대하고, 자녀가 이에 미치지 못할 때 행하는 통제적 양육방식이다.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자기비난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선, 2018). 또한 박신영(2014)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거부민감성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주관적 경험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Grych, Seid, & Fincham, 199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정의하고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자기애 (Narcissism)

1) 자기애의 개념

‘자기애(narcissism)’란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는 비극적인 인물 Narcissos(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자기애(narcissism)’라는 용어는 1898년에 Havelock Ellis가 한 남성의 자기성애(auto-eroticism) 사례를 나르키소스(Narcissos) 신화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고종숙, 2016; Akhktar & Thomson, 1982). Freud(1914)가 <On narcissism> 논문을 발표하면서 자기애를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하였고 심리학자들이 자기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자기애는 인간의 성격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한수정, 1999; 한혜림, 2004).

Freud(1957)는 자기애를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애 성향은 어린 시절 누구나 경험하는 속성이고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데, 유아는 어린시절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자신의 육체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에 되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때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자신이 매우 소중한 대단한 존재라는 느낌을 형성하는데, 이를 ‘일차적 자기애(primary narcissism)’라고 부른다. 이후 아동이 자신과 외부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면서 심리적 에너지가 부모에게로 향하는 대상애(object-love)가 나타난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발달이라고 하였으나 이 대상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대상이 상실된 경우 심리적 에너지는 대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기에게 다시 투여되어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을 ‘이차적 자기애(secondary narcissism)’라고 하였다. 이때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고착되면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병리적 자기애가 발생한다. Freud(1914)에 의하면, 부모 스스로가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애정

을 보이거나 심하게 간섭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대상애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자기애적 상태에 고착하게 한다고 하였다(하현재, 2017).

Kernberg(1975)는 자기애적 성격의 원인과 기제에 대해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하고 냉정하고 애정결핍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자기애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이상적 자기상과 어머니상이 혼합된 웅대한 자기상이 병리적 자기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한 아이는 애정에 대한 갈증과 함께 부모에 대한 분노도 함께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 억압하고 부모의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나마 부모가 좋은 점이라고 인정해주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어 이상적인 자기상을 부풀린다. 또한 부모의 사랑을 강하게 열망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부모상을 마음 속에 간직하게 된다. 이렇게 아이는 이상적인 부모상을 자주 상상하게 되고 이것이 이상적인 자기상과 융합되면 실제보다 현저하게 과장된 자기상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Kohut(1971, 1977)은 ‘자기(self)’를 중심으로 자기애에 대하여 접근하였는데, 자기의 일부로 경험되는 대상, 즉 ‘자기대상’은 자신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을 ‘자기대상’이라고 하였고, 타인과의 관계가 자기인식 발달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Kohut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자기대상과의 자기애 경험을 통한 자기다움의 형성으로 풀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공감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기대상과의 공감적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응집력 있고 건강한 자기애가 형성되며, 한 사람의 성격 및 인격 등에 영향을 미치고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Kohut(1968)에 따르면 신생아는 부모의 전폭적인 애정과 보살핌을 받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자기애가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감과 동시에 일부는 남아서 자기애적 발달을 이룬다고 하였다. Kohut은 부모가 자녀의 자기애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웅대성에 대한 적절한 확인과 칭찬을 해주지 않고 자녀에게 이상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

하지 않을 때 자기애적 장애가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하현재, 2017). 자기애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또는 부풀려진 자기상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self)에 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이세연, 2008; 하현재, 2017).

Millon(1985)의 사회학습이론에서 자기애적 성격은 아이의 자기 가치감을 지나치게 높여주는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내면화된 자기상을 비현실적으로 고양시켜 생긴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일관되지 않고 부풀려진 자녀의 자기 가치감과 특권의식으로 내재화된 자기상은 외부현실에 의해 타당화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강화된다. 이렇게 과장된 자기상은 좌절이 일어났을 경우 분노를 일으키고, 가끔 일어나는 성취에 의한 간헐적인 강화는 그러한 자기상의 왜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녀는 실제 자기상에 비해 훨씬 더 부풀려진 자기상으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망상에 쉽게 빠지게 된다(차타순, 2002).

2)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

자기애 성향은 드러나는 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 된다(강선희, 정남운, 2002; Atlas & Them, 2008; Wink 1991). Wink(1991)는 여섯 개의 MMPI 자기애 척도(Six MMPI Narcissism Scale)의 분석을 통하여 과대성- 과시성(grandiosity-exhibitionism)의 요소와 취약성-과민성(vulnerability-sensitivity)의 요소가 각각 ‘드러난(overt) 자기애’와 ‘은밀한(covert) 자기애’에 관련된다는 것을 밝혀 자기애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홍이화, 2011; Wink, 1991; 고종숙, 2016에서 재인용).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는 거대하고 과장된 자기지각과 자기과시 등의 오만한 태도가 주된 특징으로 보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는 표면적으로는 자기애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성격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타인의 반응, 특히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음을

많아 과도하게 감정을 억제하고 주위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실수나 잘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창피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려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쉽게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낀다(권석만, 한수정, 2000).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거대자기 환상은 외현적 자기에와 달리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나타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울, 불안, 그리고 과민한 모습들이다(강선희, 정남운, 2002). Cooper(2000)에 의하면,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가 동일한 자기에적 역동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현상적인 특징을 가지는 이유는 방어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에는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는 외현적 자기에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찬사를 요구하고 과대성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기를 방어하는 것과는 다른 방어 방식이다(이수연, 2019). 이처럼 내현적 자기에가 외현적 자기에보다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 더 높으며, 낮은 자존감과 우울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박세란, 2004; 박진숙, 2007; 정남운, 2001).

자기애의 내용 영역을 구분한 Akhtar와 Thomson(1982)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애가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 및 이상, 사랑과 성, 인지양식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결합이 있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이를 외현적인 것과 내현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강선희, 정남운, 2002; 이두류, 2018).

대인관계문제는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는데,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겪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강은정, 장성숙, 2007; 백승혜, 현명호, 2008; Weikel, Avara, Hanson, & Kater, 2010; 이두류, 2019에서 재인용).

<표 1>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Akhtar & Thomson, 1982)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자기개념	고양된 자기존중; 거만한 웅대성; 부, 권력미, 영민함에 대한 환상들; 특권의식; 자신이 취약하지 않다는 착각	지나친 민감성; 열등감, 무가치감, 취약함; 힘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대인관계	깊이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 절하하는 경향, 종종 '화려한' 고립으로 철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 칭찬에 대한 강한 갈망
사회적 적응	사회적 성공; 거짓 승화; 강한 야망	만성적인 지루함, 불확실성,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더 역기능적이라는 증거들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다(Hibbard, 1992; Watson, Taylor, & Morris, 1987; Wink 1991). 이와 같이 Frued 이후 많은 현대 이론가와 연구자들은 자기애가 관대한 자기애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드러나는 양상이 판이하게 다른 또 다른 유형의 자기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자기애가 병리적 자기애로 발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Akhtar & Thomson, 1982; Cooper, 2000; Frued, 1914, 1957; Hibbard, 1992; Kernberg, 1975; Kohut, 1968, 1971, 1977; Million, 1985; Watson, Taylor, & Morris, 1987; Wink, 1991). 본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대인관계문제 (Interpersonal Problems)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자아 발달과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권석만, 1995).

Sullivan(1953)은 대인관계란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이 만족감과 안전감을 찾아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성격은 대인관계의 상황에서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으로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위해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인관계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복합적 패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이면서 상호지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이형득, 1982). 그러므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정체감 확립과 건전한 성격 발달을 도모한다(권석만, 1995; 정진희, 2016). 뿐만 아니라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등 사회적 존재로서 지니는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다(Maslow, 1987). 특히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갈등상황에 놓였을 때 잃어버리기 쉬운 자신감을 돌려주고, 외로움을 달래고 고통을 견딜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며 잠재된 내적 자원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촉진해준다(유윤경, 2011). 이런 친밀감의 욕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김혜원, 2016).

청소년은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집단 환경 속에서 보내게 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전개되는 상호작용과 갖가지의 환경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간다(김선민, 2004).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 발달과제가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생리적, 심리적인 변화가 크고 죄의식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시기에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까운 타인과

지속적이고 잦은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8). 이 기간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는 청소년은 친구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또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된다(권석만, 1997).

이렇듯 대인관계가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인관계문제라고 정의한다. Leary(1957)는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로 하여금 불편감을 유발하여 대인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박경애, 이재규, 권혜수(1998)는 대인관계문제라는 것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수줍음과 불안, 부적절한 느낌, 사회적 고립과 위축, 그리고 소극적인 비주장성 행동, 불필요한 공격적 행동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대인관계문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받거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Leary(1957)는 신프로이트 학파를 이어받아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계와 밀접한 접촉이 심리적 영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인관계가 큰 의미를 가진다(박아청, 2008). 청소년들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자기개념의 결여, 부정적인 대인관계로 인한 다양한 심리, 사회적 부적응적인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김성령, 2016 ; 배정우, 2003).

또한 권석만(1995), 이형득(1982)에 의하면 대인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정체감 확립, 건전한 성격발달, 자아성취감, 행복감, 욕구만족 등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 우울, 욕구좌절, 소외 등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병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성미, 2013). 이 외에도 청소년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따돌림 피해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사고, 정서, 행동특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대인신념, 대인지각, 의사

소통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강진령, 유형근, 2000; 심연흠, 2015).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부적응은 부모와의 갈등, 낮은 자존감 및 학업 실패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세나, 2015; Hauenstein, 2003). Montemayor와 Hanson(198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형제들과도 비슷한 갈등 유형을 보인다고 말한다. 또한, Reese-Veber와 Bertle-Haring(1998)은 163가구의 청소년 자녀와 다른 가족 간의 갈등 유형을 분석하여 부모 자녀간의 갈등 유형이 다른 가족들과의 갈등에 의미심장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대인관계문제 유형이 부모 자녀간의 갈등 유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했다(김정태,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대인관계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기자비 (Self-Compassion)

최근 자기자비(self-compassion)가 심리적 건강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가 축적되면서(MacBeth & Gumley, 2012) 임상적 개입에서 자기자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박세란, 이훈진, 2015). 자기자비의 정의는 불교의 ‘자비’ 개념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Neff(2003a)는 자비 중에서도 ‘자신에게 행하는 자비’라는 불교적 관점을 수용하여 자기자비(self-compassion)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박세란, 이훈진, 2015). 자기자비란 개인이 고통에 처했거나 부적절감의 인식, 실패를 경험할 때 자기를 비난하거나 주어진 고통을 무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돌아보는 온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Neff, 2003a)

자기자비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의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Neff, 2003a). 첫 번째, 자기친절(self-kindness)은 고난과 실패를 겪는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혹독하게 자책하기보다 자신의 미성숙함을 관대하게 바라보며 온정적으로 대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비난하고 자신에게 판단적 이해를 하는 자기판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두 번째, 보편적 인간성(common humanity)은 개인이 겪는 고난이나 실패가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탈개인화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이다. 이는 고통을 자신만 느끼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고립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세 번째, 마음챙김(mindfulness)은 실패와 고난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 비판단적으로 관찰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과잉동일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최하나, 2018; Neff, 2003a). 자기자비의 이 세 가지 구성요인들은 개념적으로 서로 구분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여 다른 요인들이 발생하거나 증가시키기도 한다(박세나, 2015; Neff, 2003a). 예를 들어, 마음챙김의 자세로 자신의 고통이나 실패 경험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어야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이러한 고통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측면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보편적 인간성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자신의 취약성을 인간의 경험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면 자신을 향한 과도한 판단을 멈추게 되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마음 챙김을 수행할 마음의 여유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이 Neff(2003)는 자기자비가 세가지 차원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세가지 차원은 각각 긍정적 자기자비와 부정적 자기자비의 대립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자기친절 대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 마음챙김 대 과잉동일시). 그러나 김수빈, 정영주, 정영숙(2017)은 자기자비에 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을 통해 국내 논문들이 자기자비의 긍정적 하위요인과 부정적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자비 측정치의 산술된 총점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자기자비의 하위요인별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의 어려움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기자비의 하위요인별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박미선, 2017; 이두류 2018) 중에서도 하위요인별로 다른 연구결과들이 있어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긍정적 하위요인과 부정적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자기자비가 가지는 복합적 개념 때문에 자기자비 연구자들은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먼저, 자기자비는 현재 정서반응에 빠져 대안적 정서반응이나 정신적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자기동정(self-pity; Goldstein & Kornfield, 1987)과 다른 개념이다(Neff, 2003a). 그리고 자기연민과 자기중심성과도 구별되는데 자기연민은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과 불행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자신의 감정을 과잉동일시하는 것이고,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최명진, 2017). 특히 자기자비와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자존감은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높은 자존감은 심리적 건강의 필수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박세란, 이훈진, 2013). 그러나 높은 자존감이 자기몰입, 자기중심성 및 자기에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고(Damon, 1995; Seligman, 1995), 높은 자존감 유지는 왜곡된 자기이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3; Sedikides, 1993; Taylor & Brown, 1988). 이러한 배경에서 자기자비는 자존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Neff, 2003b). 선행연구들에서 자비자비는 우울, 불안(MacBeth & Gumley, 2012), 반추(Raes, 2010), 폭식행동(이신혜, 조용래, 2014) 등의 심리적 부적응과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삶의 만족도, 행복, 낙관성, 지혜, 호기심 안녕감 및 강점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박세란, 이훈진, 2013; Neff, Kirkpatric, & Rude, 2007). 자기자비가 심리적 건강과 강한 관련

성을 보이는 것은 자기자비가 부정적 자극으로부터 오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세란, 2015; Neff, Hsieh, & Dejithirat, 2005) 더불어 자기자비와 대인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기자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문제를 낮게 인식하며(박세나, 2015),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덜 민감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더 원만한 대인관계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한다(이은지, 서영석, 2014)

Neff(2003a)는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보편적인 경험의 일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높을 것이며, 자기판단을 적게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판단도 적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더 많은 정서적 지원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이두류, 2018).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기자비는 내현적 자기애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자기애적 성격의 원인과 기제가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에 기인한다는 Kernberg(1975)의 주장대로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공감적 반영 실패로 인해 자기애적 욕구가 결핍되고 적절한 이상화 대상을 갖지 못하여 자기애적인 취약성과 수치심, 민감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Kohut, 1971; 1977). 반면, 자기자비는 심리적 건강과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자비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는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기자비와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 사이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내현적 자기애와 자비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울산광역시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773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모든 문항 일괄 응답한 것이나 무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705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총 705명 중 성별 구성은 남자 296명(42%), 여자 409명(58%)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 342명(48.5%), 2학년 316명(44.8%), 3학년 47명(6.7%)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705)

	집단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자	296	42.0
	여자	409	58.0
학 년	1학년	342	48.5
	2학년	316	44.8
	3학년	47	6.7
총 계		705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4가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존지향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척도(DAPCS)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Soenens, Vansteenkiste, Luyten(2010)이 개발한 의존지향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척도(The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 : DAPCS)를 조은주(201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DPC: Dependency-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8문항,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APC: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9문항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적이지 않을 경우 행해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 부모가 행하는 심리적 통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자기보고 형식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은주(2012)의 연구에서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 .76, 모 .74,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 .92, 모 .91이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이슬(2015)의 연구에서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 .78, 모 .77,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 .93, 모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부 .90, 모 .89이고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 .77, 모 .78,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 .92, 모 .91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부모의 심리적 통제(DAPCS)척도 하위요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8	1, 2, 3, 4, 5, 6, 7, 8	.77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9	9, 10, 11, 12, 13, 14, 15, 16, 17	.92
	전체	17		.90
모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8	1, 2, 3, 4, 5, 6, 7, 8	.78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9	9, 10, 11, 12, 13, 14, 15, 16, 17	.91
	전체	17		.89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에 해당하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 요인

에 해당하는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구성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자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진희(2016), 김미진(2017), 김은애(2018)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각각 .91, .93,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
목표 불안정	9	5, 15, 20*, 23, 29, 30, 37*, 42, 44	.88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9	2, 6, 7, 13, 17, 24, 33, 38, 43	.87
착취/자기중심성	9	4, 9, 11, 12, 16, 22, 27, 35, 45	.84
과민/취약성	10	3, 8, 10, 14, 19, 25, 26, 31, 36, 40	.88
소심/자신감부족	8	1, 18, 21, 28, 32, 34*, 39, 41	.79
전체	45		.94

*은 역채점 문항

3) 대인관계문제척도 단축형 (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Circumplex Scales: KIIP=SC)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측정을 위하여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nor(1988)이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재구성한 검사를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원형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 관여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61~.89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고,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
통제지배	5	19, 21, 27, 30, 33	.79
자기중심성	5	6, 7, 10, 13, 22	.82
냉담	5	2, 8, 9, 15, 18	.84
사회적억제	5	4, 12, 17, 31, 36	.87
비주장성	5	1, 3, 5, 11, 16	.86
과 순응성	5	14, 23, 34, 37, 39	.81
자기희생	5	20, 24, 25, 32, 40	.78
과 관여	5	26, 28, 29, 35, 38	.78
전체	40		.95

4)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K-SCS)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 측정은 Neff(2003)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 (Self-Compassion Scale: SCS)를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이 번안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 챙김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다시 세부적으로 자기친절 대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 대 고립, 마음챙김 대 과잉동일시의 6가지 요인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아니다(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5점 Likert식 척도이다. 그 중에서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에 해당하는 13개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높음을 의미한다. Neff(2003b)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2로,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세나(201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5로 이두류(2018)의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86이고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하기와 같이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자기자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
자기친절	5	5, 12, 19, 23, 26	.78
자기판단*	5	1, 8, 11, 16, 21	.87
보편적 인간성	4	3, 7, 10, 15	.75
고립*	4	4, 13, 18, 25	.85
마음챙김	4	9, 14, 17, 22	.73
과잉 동일시*	4	2, 6, 20, 24	.83
전체	26		.86

*은 역채점 문항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21 통계 프로그램과 Hayes(2018)의 The PROCESS macro 3.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기술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각각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8)의 The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의 다중매개 분석법인 The PROCESS macro Model 6를 활용하여 하나의 모형에서 두 개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하고, 개별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 문제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및 하위요인들의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West, Finch, & Curran(1995)은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값이 각각 ± 2 , ± 7 이내에 있을 때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 데이터의 왜도, 첨도의 값은 각각 ± 2 , ± 7 범위 내에 분포하므로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5점 기준에 전체 평균은 1.76($SD=0.58$)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평균은 1.99($SD=0.63$),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평균은 1.57($SD=0.69$)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는 5점 기준에 평균 2.24($SD=0.61$)로 하위요인 중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이 평균 2.56($SD=0.86$)으로 가장 높고, 착취/자기중심성이 평균 1.67($SD=0.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자비는 5점 기준에 전체 평균 3.01($SD=0.59$)이며, 하위요인 중 고립($M=3.73$)이 가장 높고 자기친절($M=2.3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는 5점 기준에 평균 2.13($SD=0.67$)으로 하위요인 중 자기희생($M=2.73$)이 가장 높고, 자기중심성($M=1.6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량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표본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향은 낮은 편이고 자기자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여진다. 주요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N=705)

측정변인	하위변인	M	SD	왜도	첨도
부모의 심리적통제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	1.99	0.63	0.47	0.12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1.57	0.69	1.51	1.95
	전체	1.76	0.58	1.06	1.03
내현적 자기애	목표불안정	2.40	0.87	0.49	-0.32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2.56	0.86	0.42	-0.47
	착취 /자기중심성	1.67	0.64	1.45	2.09
	과민/취약성	2.14	0.83	0.76	-0.08
	소심 /자신감부족	2.49	0.75	0.49	-0.26
	전체	2.24	0.61	0.64	-0.09
자기자비	자기친절	2.31	0.86	0.66	-0.01
	자기판단	3.69	1.04	-0.64	-0.45
	보편적인간성	2.44	0.90	0.57	-0.12
	고립	3.73	1.08	-0.65	-0.49
	마음챙김	2.54	0.87	0.31	-0.31
	과잉동일시	3.37	1.09	-0.34	-0.88
대인관계 문제	전체	3.01	0.59	-0.25	0.13
	통제지배	1.75	0.71	0.98	0.57
	자기중심성	1.65	0.71	1.20	0.97
	냉담	1.99	0.92	0.87	0.04
	사회적 억제	2.13	0.98	0.80	-0.11
	비주장성	2.34	1.07	0.62	0.12
	과순응성	2.30	0.92	0.49	-0.45
	자기희생	2.73	0.93	0.04	-0.75
	과관여	2.19	0.88	0.52	-0.36
전체	2.13	0.67	0.31	-0.55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r=.433, p<.01$)와 대인관계문제($r=.338, p<.01$)와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기자비($r=-.304, p<.01$)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자비($r=-.594, p<.01$)와는 부적상관을, 대인관계문제($r=.744, p<.01$)와는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비는 대인관계문제($r=-.560, p<.01$)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8>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N=705)

	1	2	3	4
1. 부모 심리적 통제	1			
2. 내현적 자기애	.433**	1		
3. 자기자비	-.304**	-.594**	1	
4. 대인관계	.338**	.744**	-.560**	1

** $p<.01$

이들의 상관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인 각각의 하위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부모의 심리검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태인관계문제 간 상관표

(N=705)

	1	1-1	1-2	2	2-1	2-2	2-3	2-4	2-5	3	3-1	3-2	3-3	3-4	3-5	3-6	4	4-1	4-2	4-3	4-4	4-5	4-6	4-7	4-8			
1	1																											
1-1	.949 ^{**}	1																										
1-2	.907 ^{**}	.537 ^{**}	1																									
2	.463 ^{**}	.354 ^{**}	.402 ^{**}	1																								
2-1	.273 ^{**}	.201 ^{**}	.273 ^{**}	.718 ^{**}	1																							
2-2	.322 ^{**}	.305 ^{**}	.279 ^{**}	.779 ^{**}	.314 ^{**}	1																						
2-3	.381 ^{**}	.313 ^{**}	.355 ^{**}	.784 ^{**}	.369 ^{**}	.581 ^{**}	1																					
2-4	.426 ^{**}	.344 ^{**}	.389 ^{**}	.895 ^{**}	.516 ^{**}	.676 ^{**}	.565 ^{**}	1																				
2-5	.284 ^{**}	.188 ^{**}	.224 ^{**}	.714 ^{**}	.470 ^{**}	.307 ^{**}	.340 ^{**}	.623 ^{**}	1																			
3	-.394 ^{**}	-.227 ^{**}	-.300 ^{**}	-.594 ^{**}	-.395 ^{**}	-.388 ^{**}	-.321 ^{**}	-.672 ^{**}	-.466 ^{**}	1																		
3-1	-.085	.004	-.059	-.108 [*]	-.163 ^{**}	.055	-.006	-.132 ^{**}	-.141 ^{**}	.048 [*]	1																	
3-2	-.322 ^{**}	-.273 ^{**}	-.307 ^{**}	-.602 ^{**}	-.373 ^{**}	-.500 ^{**}	-.410 ^{**}	-.733 ^{**}	-.483 ^{**}	.745 ^{**}	.194 ^{**}	1																
3-3	.070	.089 [*]	.081	.223 ^{**}	.076	.275 ^{**}	.190 ^{**}	.188	.131 ^{**}	.212 ^{**}	.403 ^{**}	-.277 ^{**}	1															
3-4	-.322 ^{**}	-.318 ^{**}	-.350 ^{**}	-.701 ^{**}	-.493 ^{**}	-.532 ^{**}	-.413 ^{**}	-.751 ^{**}	-.591 ^{**}	.750 ^{**}	.159 ^{**}	.773 ^{**}	-.237 ^{**}	1														
3-5	-.022	.015	-.017	-.019	-.086	.000	.012	-.043	-.073	.465 ^{**}	.005 ^{**}	-.083 ^{**}	.484 ^{**}	-.020	1													
3-6	-.307 ^{**}	-.261 ^{**}	-.277 ^{**}	-.681 ^{**}	-.391 ^{**}	-.579 ^{**}	-.383 ^{**}	-.731 ^{**}	-.471 ^{**}	.721 ^{**}	.101 ^{**}	.773 ^{**}	-.239 ^{**}	.791 ^{**}	-.020	1												
4	.333 ^{**}	.275 ^{**}	.314 ^{**}	.744 ^{**}	.459 ^{**}	.506 ^{**}	.442 ^{**}	.772 ^{**}	.781 ^{**}	-.560 ^{**}	-.113 ^{**}	-.634 ^{**}	.213 ^{**}	-.040 ^{**}	-.012	-.633 ^{**}	1											
4-1	.344 ^{**}	.236 ^{**}	.315 ^{**}	.571 ^{**}	.296 ^{**}	.480 ^{**}	.633 ^{**}	.532 ^{**}	.265 ^{**}	-.361 ^{**}	-.023	-.483 ^{**}	.176 ^{**}	-.447 ^{**}	.010	-.444 ^{**}	.633 ^{**}	1										
4-2	.310 ^{**}	.236 ^{**}	.302 ^{**}	.548 ^{**}	.363 ^{**}	.307 ^{**}	.570 ^{**}	.453 ^{**}	.496 ^{**}	-.383 ^{**}	-.106 ^{**}	-.391 ^{**}	.173 ^{**}	-.390 ^{**}	-.025	-.323 ^{**}	.676 ^{**}	.569 ^{**}	1									
4-3	.230 ^{**}	.173 ^{**}	.216 ^{**}	.553 ^{**}	.391 ^{**}	.245 ^{**}	.324 ^{**}	.516 ^{**}	.671 ^{**}	-.395 ^{**}	-.113 ^{**}	-.446 ^{**}	.105 ^{**}	-.486 ^{**}	.000	-.374 ^{**}	.781 ^{**}	.374 ^{**}	.624 ^{**}	1								
4-4	.223 ^{**}	.161 ^{**}	.232 ^{**}	.600 ^{**}	.390 ^{**}	.313 ^{**}	.286 ^{**}	.581 ^{**}	.735 ^{**}	-.466 ^{**}	-.136 ^{**}	-.593 ^{**}	.173 ^{**}	-.501 ^{**}	-.012	-.475 ^{**}	.357 ^{**}	.389 ^{**}	.554 ^{**}	.383 ^{**}	1							
4-5	.182 ^{**}	.140 ^{**}	.176 ^{**}	.533 ^{**}	.396 ^{**}	.216 ^{**}	.162 ^{**}	.519 ^{**}	.744 ^{**}	-.465 ^{**}	-.156 ^{**}	-.456 ^{**}	.077 ^{**}	-.461 ^{**}	-.036 ^{**}	-.450 ^{**}	.390 ^{**}	.267 ^{**}	.439 ^{**}	.093 ^{**}	.767 ^{**}	1						
4-6	.243 ^{**}	.209 ^{**}	.225 ^{**}	.554 ^{**}	.373 ^{**}	.367 ^{**}	.206 ^{**}	.557 ^{**}	.007 ^{**}	-.449 ^{**}	-.094 ^{**}	-.491 ^{**}	.147 ^{**}	-.511 ^{**}	-.013	-.516 ^{**}	.310 ^{**}	.371 ^{**}	.373 ^{**}	.493 ^{**}	.610 ^{**}	.675 ^{**}	.373 ^{**}	1				
4-7	.253 ^{**}	.234 ^{**}	.212 ^{**}	.510 ^{**}	.296 ^{**}	.436 ^{**}	.152 ^{**}	.576 ^{**}	.445 ^{**}	-.463 ^{**}	-.044	-.552 ^{**}	.209 ^{**}	-.560 ^{**}	.063	-.621 ^{**}	.717 ^{**}	.393 ^{**}	.242 ^{**}	.313 ^{**}	.453 ^{**}	.510 ^{**}	.743 ^{**}	.453 ^{**}	1			
4-8	.299 ^{**}	.267 ^{**}	.259 ^{**}	.633 ^{**}	.253 ^{**}	.638 ^{**}	.501 ^{**}	.610 ^{**}	.398 ^{**}	-.485 ^{**}	-.016	-.590 ^{**}	.273 ^{**}	-.533 ^{**}	.002	-.586 ^{**}	.693 ^{**}	.676 ^{**}	.417 ^{**}	.321 ^{**}	.432 ^{**}	.333 ^{**}	.533 ^{**}	.333 ^{**}	.533 ^{**}	1		

*p<.05, **p<.01

주. 1 부모의 심리검통제, 1-1 부모성취, 1-2 부모성취, 2. 내현적 자기애, 2-1 목표불안정, 2-2 인정유구기타자기형성, 2-3 학위자기형성, 2-4 개인/취약성 2-5 소심/자신감부족, . . .

3 자기자비, 3-1 자기자비, 3-2 자기자비, 3-3 보편적인연성, 3-4 고리, 3-5 마음챙김, 3-6 자명동일성, 4. 태인관계문제, 4-1 통제지향성, 4-2 자기중심성, 4-3 방탕, 4-4 사회적 역할, 4-5 비주정성, 4-6 귀순성, 4-7 자기회성, 4-8 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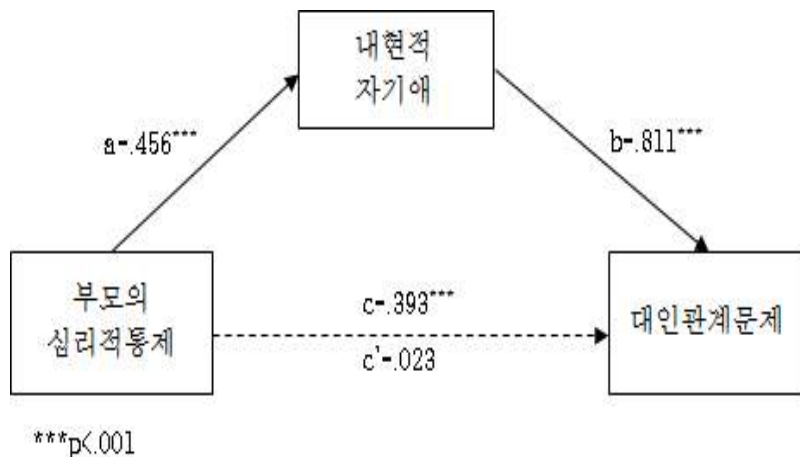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인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의존 $r=.354$, 성취 $r=.402$,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의존 $r=.344$, 성취 $r=.399$, $p<.01$)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소심/자신감부족’(의존 $r=.183$, 성취 $r=.224$, $p<.01$)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은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통제지배’(의존 $r=.286$, 성취 $r=.315$, $p<.01$)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주장성’(의존 $r=.140$, 성취 $r=.176$, $p<.01$)과는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부모의 의존지향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 중 ‘과민/취약성’과 더 관련성이 있고,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들 중에는 ‘통제지배’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의 ‘소심/자신감부족’이 대인관계문제의 ‘사회적 억제’($r=.758$, $p<.01$), ‘비주장성’($r=.744$, $p<.01$)과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상관관계는 전체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인 소심한 성격과 자신감 부족이 대인관계에서 불안해하고 당황하여 자신의 욕구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대인관계문제의 특성과 관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하위요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착취/자기중심성’과 대인관계문제의 ‘자기희생’($r=.152$, $p<.01$)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비의 하위요인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자비의 긍정적 하위요인인 ‘자기친절’, ‘보편적인간성’, ‘마음챙김’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하위요인인 ‘자기판단’(부모의 심리적 통제 $r=-.332$, 내현적 자기애 $r=-.662$, 대인관계문제 $r=-.634$, $p<.01$) ‘고립’(부모의 심리적 통제 $r=-.382$, 내현적 자기애 $r=-.700$, 대인관계문제 $r=-.640$, $p<.01$), ‘과잉동일시’(부모의 심리적 통제 $r=-.307$, 내현적 자기애 $r=-.681$, 대인관계문제 $r=-.633$, $p<.01$)와는 다소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자비의 부정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이 부정적인 요인들은 대인관계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Hayes(2018)가 제안한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경로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주1. c: 총효과, c': 직접효과

주2.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표시함.

[그림 2]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총 효과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 703)=90.719, p<.001$), 11.4%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393, p<.001$).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부모

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18.8%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고($F_{(1, 703)}=162.191,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456, p<.001$).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의 회귀모형은 55.4%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으며($F_{(2, 702)}=435.217, p<.001$),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는 높은 수준의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811, p<.001$).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를 매개 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부모의 심리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B=.023, p=ns$), 내현적 자기애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검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 (N=70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p
대인관계문제	부모의 심리적통제	.393	.041	9.525***	.000
	$F_{(1, 703)}=90.719, p=.000, R^2=.114$				
내현적자기애	부모의 심리적통제	.456	.036	12.735***	.000
	$F_{(1, 703)}=162.191, p=.000, R^2=.188$				
대인관계문제	부모의 심리적통제	.023	.033	.705	.481
	내현적 자기애	.811	.031	26.281***	.000
$F_{(2, 702)}=435.217, p=.000, R^2=.554$					

*** $p<.001$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Bootstrapping으로 재추출된 표본 수는 총 5,000개였으며, 계수 값은 .370이었다.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309와 상한값 .433 사이에서 0이 포함되지 않음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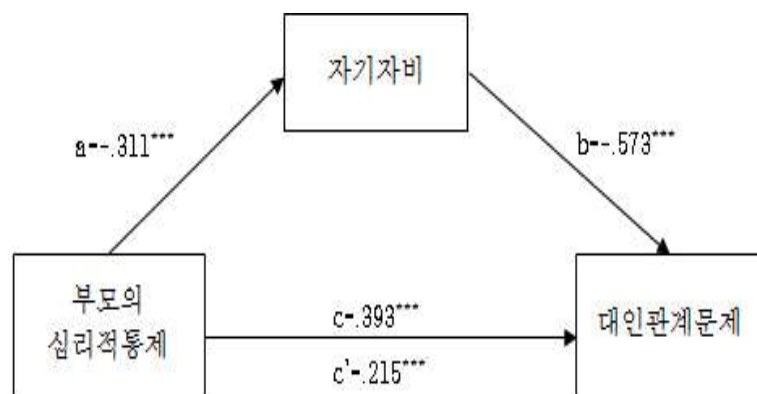
<표 11>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705)

변인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내현적 자기애	.370	.032	.309	.433

주.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의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Model 4를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경로계수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주. c: 총효과, c': 직접효과

*** $p < .001$

[그림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먼저,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총 효과에 대한 회귀모형은 내현적 자기에 매개효과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11.4%의 설명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_{(1, 703)}=90.719, p < .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B=.393, p < .001$). 다음으로 자기자비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자기자비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회귀모형은 9.3%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으며($F_{(1, 703)}=71.713, p < .001$), 자기자비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B=-.311, p < .001$).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자비는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자비의 회귀모형은 34.5%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으며($F_{(2, 702)}=184.707, p<.001$), 자기자비는 대인관계문제($B=-.573, p<.001$)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기자비를 매개 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부모의 심리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B=.215, p<.001$), 자기자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검증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N=70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p
대인관계문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393	.041	9.525***	.000
	$F_{(1, 703)}=90.719, p=.000, R^2=.114$				
자기자비	부모의 심리적 통제	-.311	.037	-8.468***	.000
	$F_{(1, 703)}=71.713, p=.000, R^2=.093$				
대인관계문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215	.037	5.760***	.000
	자기자비	-.573	.037	-15.715***	.000
$F_{(2, 702)}=184.707, p=.000, R^2=.345$					

*** $p<.001$

또한 자기자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Bootstrapping으로 재추출된 표본 수는 총 5,000개였으며, 계수 값은 .178이었다. 95%의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 .133과 상한값 .224 사이에서 0이 포함되지 않음을 통해 자기자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3>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705)

변인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자기자비	.178	.023	.133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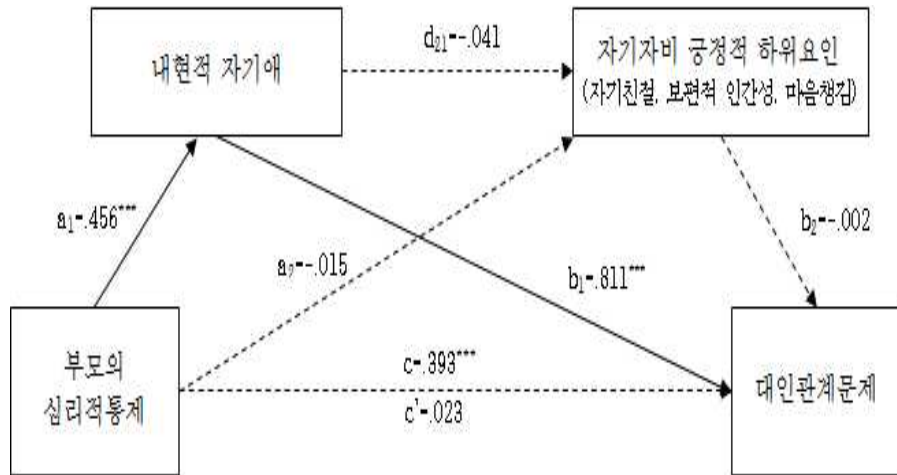
주.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Model 6를 사용하여 Hayes(2018)가 제안한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박미선, 2017; 이두류 2018)에서 자기자비 하위요인별 다른 결과를 보인 것과 같이, 앞서 살펴본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자기자비의 긍정적 하위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보다 부정적 하위요인(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이 다른 측정변인들과 더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낸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은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하위요인과 부정적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모형을 검증하였고, 경로계수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4단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총 효과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_{(1, 703)}=90.719, p<.001$), 11.4%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393, p<.001$). 2단계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회귀모형을 살펴본 결과, 18.8%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으며($F_{(1, 703)}=162.191,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B=.456, p<.001$)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 $p < .001$

주1. c: 총효과, c': 직접효과

주2.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표시함.

[그림 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그러나, 3단계에서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에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F_{(2, 702)}=.349, p=ns$). 마지막 4 단계에서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에,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다($F_{(3, 701)}=289.737,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55.4%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B=.811, p<.001$)의 영향만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B=.023, p=ns$)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 ($B=-.002, p=ns$)는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1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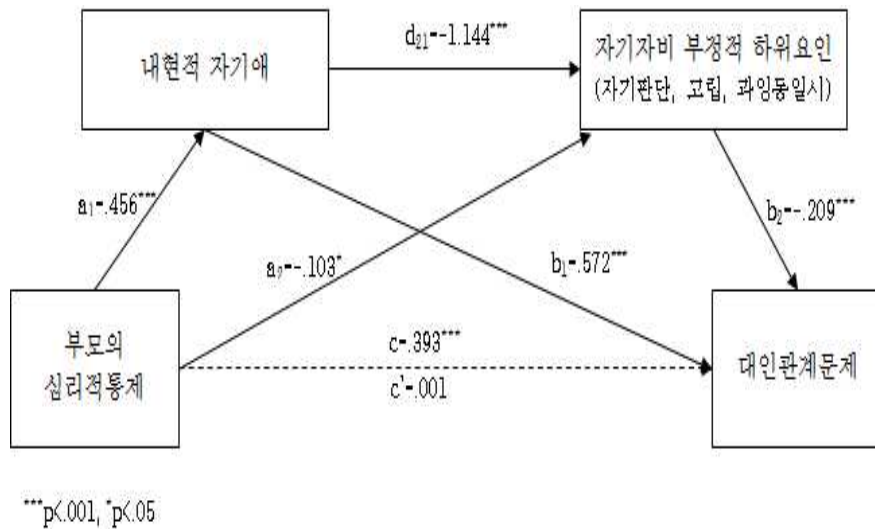
<표 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N=70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p
대인관계문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393	.041	9.525***	.000
$F(1, 703)=90.719, p=.000, R^2=.114$					
내현적 자기애	부모의 심리적 통제	.456	.036	12.735***	.000
$F(1, 703)=162.191, p=.000, R^2=.188$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부모의 심리적 통제	-.015	.052	-.294	.769
	내현적 자기애	.041	.049	.832	.406
$F(2, 702)=.349, p=.706, R^2=.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	.023	.033	.704	.482
대인관계문제	내현적 자기애	.811	.031	26.253***	.000
	자기자비 긍정적 하위요인	-.002	.024	-.086	.932
$F(3, 701)=289.737, p=.000 R^2=.554$					

*** $p < .001$

5-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모형을 검증하였고, 경로계수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주1. c: 총효과, c': 직접효과

주2.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표시함.

[그림 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4단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총 효과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_{(1, 703)}=90.719, p<.001$), 11.4%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393, p<.001$). 2단계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회귀모형을 살펴본 결과, 18.8%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으며($F_{(1, 703)}=162.191,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B=.456, p<.001$)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의 회귀모형도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_{(2, 702)}=417.459, p<.001$), 54.3%의 설명력을 보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B=-.103, p<.05$)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B=-1.144, p<.001$)는 아주 높은 수준의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회귀모형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_{(3, 701)}=345.005,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59.6%로 나타났으며, 개별적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B=.572, p<.001$)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 ($B=-.209, p<.001$)의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B=.001, p=ns$)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을 순차적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은 완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N=705)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p
대인관계문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393	.041	9.525***	.000
	$F(1, 703)=90.719, p=.000, R^2=.114$				
내현적 자기애	부모의 심리적 통제	.456	.036	12.735***	.000
	$F(1, 703)=162.191, p=.000, R^2=.188$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부모의 심리적 통제	-.103	.048	-2.146*	.032
	내현적 자기애	-1.144	.046	-25.045***	.000
$F(2, 702)=417.459, p=.000, R^2=.543$					
대인관계문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001	.031	.044	.965
	내현적 자기애	.572	.040	14.157***	.000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	-.209	.024	-8.604***	.000
$F(3, 701)=345.005, p=.000, R^2=.596$					

*** $p < .001$

본 결과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Bootstrapping으로 재추출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를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이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261$, Bias-corrected CI=.206~.317).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을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였다($B=.022$, Bias-corrected CI=-.001~.042)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을 거쳐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이중매개 경로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109$, Bias-corrected CI=.076~.144).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의 순차적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705$)

준거변인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대인관계 문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내현적 자기애 → 대인관계문제	.261	.029	.206	.317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 → 대인관계문제	.022	.011	.001	.043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내현적 자기애 → 자기자비 부정적 하위요인 → 대인관계문제	.109	.018	.076	.144

주.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

V. 논의 및 제언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긍정적/부정적 하위요인)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이는 지 살펴보았다. 고등학생 시기의 자녀들은 독립성과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탐색하고 실행하려 한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중 하나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고등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문제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적응적인 특성인 자기자비는 대인관계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변인으로 예측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자기애가 어느 정도 형성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도 함께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자기자비, 대인관계문제는 서로 상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 간에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도 많이 발생한다고 밝힌 정진희(2016), 김현진(201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여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 중 통제 지배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비주장성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에 비해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들과 대부분 높게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독립을 걱정하는 부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자녀의 높은 성취를 기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더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 부모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통제를 지속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또래 수용도가 낮고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한 한은진(2015)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의 원인과 기제에 대해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Kernberg(1975)의 연구를 뒷받침해준다. 그리고 자녀의 독립적인 생각과 느낌을 억압하고 죄의식을 유발하는 심리적 통제가 자기애를 유발하는 변인이라는 경험적 연구들(김계령, 1997; 김은영, 1996; 마혜정, 2004; Fukunishi, Nakagawa, Nakamura, 1996; 윤언정, 2009에서 재인용)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더 나타난 것으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고종숙(2016), 이두류(2018)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변인의 ‘소심/자신감부족’과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인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소극적인 대인관계문제를 더 경험할 수 있다고 밝힌 안봉화(2011)의 연구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회피', '비주장성'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상관을 밝힌 박진숙(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내향적 자기에 성향자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인관계에서 억제하고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정남운(200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과관여'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타인에게 칭찬 받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클수록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는 대인관계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가진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상담 진행시 상담자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대인관계패턴을 잘 파악하고 내담자의 내적인 고통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자비와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자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에, 대인관계문제와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자녀의 개성, 정체성 발달을 침해하게 되는데(장경문, 2007),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자신에 대한 판단이나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자기자비는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의 지나친 민감성, 열등감, 무가치감, 취약함 등의 특성(Akhtar & Thomson, 1982)도 자기자비를 낮출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에, 대인관계문제의 하위변인들과 자기자비의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자비의 부정적 하위변인인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하위변인인 자기친절, 보편적인간성, 마음챙김과는 거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고종숙(2016)의 연구에서 측정 변인들이 자기자비의 부정적 하위요인인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와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에, 대인관계문제가

자기자비의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에서 자기자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개입할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도 개입하지만 내현적 자기애 성향으로 인해 생기는 대인관계문제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실패로 인해 자기를 비난적으로 판단하거나 과잉 동일시하여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돕는 것을 우선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를 완전 매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과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내현적 자기애를 높여 대인관계문제가 훨씬 더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더 겪게 된다는 연구(정선화, 2016; 임도윤, 2017; Dickinson & Pincus, 2003; Wink, 1991)결과를 지지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울, 불안 그리고 과민한 모습들이다(강선희, 정남운, 2002).이로 인해 대인관계문제에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상담시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기자비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를 부분 매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자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자비는 낮게 나타나고, 자기자비가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에게 비판적이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경우 자기자비가 낮아 다양한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것을 예측한 선행 연구(박세나, 2015)를 지지한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하위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과 부정적 하위요인(자기판단, 고립, 과잉 동일시)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긍정적 하위요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부정적 하위요인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부정적 하위요인은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내현적 자기애는 높아질 수 있고, 자기자비는 낮아져 대인관계문제를 많이 겪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내현적 자기애가 높아도 자기자비가 높으면 대인관계문제를 덜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Neff(2003a)는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보편적인 경험의 일부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높을 것이며, 자기판단을 적게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판단도 적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기자비가 높으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해로운 행동을 하기보다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되면서 대인관계문제도 줄어들게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자기자비가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이 될 수 있다는 Neff(2003a)의 견해에 지지한다. 또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밝힌 김명희(2017)의 연구와 고등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자비가 매개한다는 박세나(201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하위요인과 부정적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는 자기자비의 긍정적 하위요인(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정적인 하위요인(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관관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는 자기자비의 부정적 하위요인들과 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부정적인 하위요인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국외에서 자기자비 각각의 하위요인들과 정신병리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Muris & Petrocchi, 2016)에서 정신병리는 자기자비의 긍정적 요인들보다 부정적 요인들과 관계에서 더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고, 자기자비의 하위요인별 역할에 대한 깊은 탐색이 어렵다는 결과(김수빈, 정영주, 정영숙, 2017)와 본 연구의 자기자비의 하위요인별 결과는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자기자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난적으로 판단하고 과잉동일시 하여 고립시키는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자기자비 증진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에 따른 결과들은 측정변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박미선(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중 자기친절, 고립, 마음챙김이 변인들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최하나(2018)의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알아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긍정적 하위요인인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이 변인들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부정적 하위요인인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자비의 조절이나 매개효과가 주요 측정 변인들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하위변인들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에 대한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에게 원만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개인의 적응과 정체감 형성,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시기의 대인관계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최초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심리적 통제가 자녀들의 대인관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자녀들의 심리적·행동적 문제의 원인들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보충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특성과 대인관계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며 상담실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관련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 파악으로 효과적인 상담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부적응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담자의 적응적 특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자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를 매개로 하여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있더라도 자기자비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문제를 덜 겪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자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밝힌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넷째, 자기자비의 기존 연구들은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심리적 통제, 내현적 자기애, 대인관계문제는 자기자비의 부정적 하위요인과 더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기자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긍정적 하위요인과 더불어 부정적 하위요인에 대한 개입방법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표집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고등학생 또는 청소년 모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방어적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에 대해 설명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설문하여 피검자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자비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 자기자비의 하위요인별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자기자비를 향상시키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를 위해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역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진령, 유형근 (2000). 집단괴롭힘. 서울 : 학지사.
- 고종숙 (2016).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 : 자기자비와 내면화 수치심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행동적 설명모형. 학생연구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0(1), 38-63.
- 권석만 (1997).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척도의 타당화 연구 :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23-1044.
- 김경희, 이희경 (2015).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긍정정서의 영향 : 경험 회피와 자기자비, 인지적 공감의 경로탐색. 상담학연구. 16(6), 83-107.
- 김명희 (2017).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문제와 자기자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라 (2014). 부모지지와 진로태도 성숙간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진 (2017). 부모의 과보호가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민 (2004). 중학생들의 비합리적 신념과 인간관계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령 (2016).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18).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실 (2014). 청소년의 애착유형이 자기자비에 미치는 영향 :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391-411
- 김은애 (2018).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재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슬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태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공감능력 매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이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 자기자비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기수용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순차적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2016).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 (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기쁨 (201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고갈, 내외적 통제소재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 박미선 (2018).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은경(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106.
- 박세나 (2015). 고등학생의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란, 이훈진(2015). 부정사건에 대한 자기조절과정에서 자기자비의 역할 : 자존감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박신영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2008). 청소년과 아이덴티티. 경기: 교육과학사.
- 박은희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숙 (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문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우 (2003). 고등학생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혜현 (2017). 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지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지연행동 :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연흠 (2014).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우울이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봉화 (2011). 내현적 자기애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하영 (2018).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윤경 (201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 심리적 수용과 탈중삼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민 (2011). 행복증진 긍정심리개입활동의 효과 : 개인-초점적 활동과 관계 - 초점적 활동의 비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연정 (2009). 부·모의 심리적 통제, 과잉기대 및 청소년의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인과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두류 (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기자비와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현, 성승연 (2011). 분노사고와 분노표현에 있어서의 자기-자비의 완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 이성미 (2013). 고등학생의 비합리적 신념이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미 (2017). 학령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교회학교 교육방법. 경성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학위논문.
- 이세연 (2008).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담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성인진입기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2019). 직장인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혜, 조용래 (2014). 자기자비의 부족이 여자 청소년의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 신체 불만족, 섭식절제 및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103-121.
- 이은선 (2018). 지각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지, 서영석 (2014). 불안전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13-441.
- 이형득 (1982).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호석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도덕적 이탈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도윤 (2017).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에 따른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적의 차이. 국내학술지논문, 한국초등교육학회.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 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보아 (2008). 대학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화 (2016).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몰입,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홍 (2007). 폐광지역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2012).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정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무조건적 수용과 내현적 자기에 관계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진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서연, 최윤정 (2016). 중·고등학생의 신체 수치심, 섭식태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7(2).
- 최하나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자비 조절효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현재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과의 관계 : 자기애의 조절효과(남녀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8). 청소년 심리학. 서울: 양서원.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미 (2007).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기질이 외현적·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진희 (2016).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 및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f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521-536.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tlas, G. D., & Them, M. A. (2008). Narcissism and sensitivity to criticis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urrent Psychology*, *27*, 62-76.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8-31319.
- Barber, B. K., & Olsen, J. A.,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1993). When ego threats lead to self-regulation failure: Negativeconsequencesof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141-156.
- Bean, R. A. Barber, B. K., &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 1335-1355.

- Bleiberg, E. (1994).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1), 30–51.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str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Damon, W. (1995). *Greater expectations: Overcoming the culture of indulgence in America's homes and schools*. New York: Free Press.
- Dickinson, K. A., & Pincus, A.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 188–207.
- Eri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reud, S. (1914/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Freud, S. (1953).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Gazda, G. M., Asbury, F. R., Balzer, F. J., Childers, W.c., Desselle, E., & Walters, R. P. *Human relations development: A manual for educators*. Boston: Ally & Bacon, 1973.
- Goldstein, J., & Kornfield, J. (1987). *Seeking the heart of wisdom*. Boston: Shambhala.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uenstein, E. J. (2003). Depress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2(2), 239–248.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the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8).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version 3.3) [Software]. Available from <http://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John wiley & Son. Inc.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Kernberg, O. F. (1975). Bo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ary, T. (1957). Internati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
- Leary, M. R., Tate, E. B., Adams, C. E., Batts Allen, A., & Hancock, J. (2007). Self-compassion and reactions to unpleasant self-relevant events: The implications of treating oneself kind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5), 887–90.
- Maslow, A. H. (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3rd ed.). Delhi, India : Pearson Education.

- Montemayor, R., & Hanson, E. A. (1985). A naturalistic view of conflict between adolescents and the parents and siblings. *Journal of Early Adolescents, 3*, 83–103.
- MacBeth, A., & Gumley A. (2012). Exploring compassion: A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self-compassion and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6), 545–552.
- Neff, K. D. (2003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 Neff, K. D. (2003b).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2.
- Neff, K. D. (2009). The role of self-compassion in development; A healthier way to relate to oneself. *Human Development, 52*–221–214.
- Neff, K. D. (2011). Self Compassion, Self Esteem, and Well Be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1), 1–12.
- Neff, K. D. & Beretvas, N. S. (2013). The role of self-compa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 *Self and Identity, 12*(1), 78–98.
- Neff, K. D., Hsieh, Y. P. & Dejithirat, K. (2005). Self-Compassion, achievement goals, and coping with academic failure. *Self and Identity, 4*(3), 263–287.
- Neff, K. D., Kirkpatrick, K. L., & Rude, S. S. (2007). Self-compassion and adaptive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1), 139–154.
- Neff, K. D., & McGehee, P. (2010). Self-compassion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elf and Identity, 9*(3), 225–240

- Raes, F. (2010). Rumination and worry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assion and depression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6), 757–761.
- Reese-Weber, M., & Bertle-Haring, S. (1998). Conflict resolution styles in family subsystems an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735–752.
- Sedikides, C. (1993).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17–338.
- Seligman, M. E. (1995). *The optimistic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ethod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54*, 226–235.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2010b). Toward a Domain-Spec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8*(1), 217–256.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W. W. Horton.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atson, P. J., & Taylor, D.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부 록

부록 1. 의존지향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척도

부록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설문지

부록 3. 대인관계문제척도 단축형 설문지

부록 4.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설문지

부록 5. 일반적 특성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하고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와 여러분의 대인관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향후 부모교육과 자기자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또한 자기자비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심리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 생활하며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까운 번호를 골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연구자 : 고정미
지도교수 : 최현주

설문조사 개인정보제공 동의

※ 본 연구에 필요한 귀하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오른쪽 칸에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부록 1. 의존지향 및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척도 설문지

- ♣ 다음 각 문장을 꼼꼼히 읽고 본인의 부모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따로 “○” 표시** 해 주십시오. 가급적 중립적 반응을 나타내는 3번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섭섭해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즐겨했던 일들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면 날 나무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집을 완전히 떠나 독립하려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어머니)에게 어떤 일을 솔직히 터놓고 지내지 않으면 실망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적으로 아버지(어머니)의 조언에 의지할 때만 행복해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어머니)와 모든 것을 함께 할 때만 내게 사랑(애정)을 보이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7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때조차 내 문제에 간섭을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8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친구 대신 아버지(어머니)에게 의지할 때만 다정하게 대해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보통 이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9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나를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0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면 나를 소홀하게 대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1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하면, 내게 사랑(애정)을 덜 보이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2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성과가 남보다 못하면 죄책감(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3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좋은 점수(등급)을 받았을 때만 내게 애정을 보이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4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될 때만 나를 존중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5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모든 일을 뛰어나게 잘 할 때만 다정하게 대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6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목표치를 높게 세울 때 나를 더 높이 평가해 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17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시험점수를 잘 받을 때만 나를 자랑스러워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어머니	1	2	3	4	5

부록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설문지

♣ 아래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문항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각각의 문항이 자신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해당되는 숫자에 “○” 표시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거의 아니다	조금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 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 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 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번호	문항	거의 아니다	조금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 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전혀 모른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번호	문항	거의 아니다	조금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 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 3. 대인관계문제척도 단축형 설문지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SC)

♣ 다음 각 문장을 주의 깊게 읽고, 평소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숫자에 “○” 표시 해 주십시오. 가급적 중립적 반응을 나타내는 3번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어렵다	1	2	3	4	5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1	2	3	4	5
4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1	2	3	4	5
5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6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8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9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1	2	3	4	5
10	다른 사람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1	2	3	4	5
11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기 어렵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6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당하지 못한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자주 피한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1	2	3	4	5
20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1	2	3	4	5
21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1	2	3	4	5
22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받아주기 싫다.	1	2	3	4	5
23	너무 잘 속는 편이다.	1	2	3	4	5
24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쓴다.	1	2	3	4	5
25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1	2	3	4	5
26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1	2	3	4	5
27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정하거나 이용한다.	1	2	3	4	5
28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참견하고 싫어진다.	1	2	3	4	5
29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1	2	3	4	5
30	의견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1	2	3	4	5
31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1	2	3	4	5
33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다.	1	2	3	4	5
34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따른다.	1	2	3	4	5
35	늘 주목받고 싶어 한다.	1	2	3	4	5
36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긴장한다.	1	2	3	4	5
37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의 험담을 너무 많이 한다.	1	2	3	4	5
39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1	2	3	4	5
40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다.	1	2	3	4	5

부록 4.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 설문지

- ♣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지 각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에 기술되어 있는 방식대로 얼마나 자주 행동하는 지 아래 다섯 가지 대답 가운데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숫자에 “○” 표시 해 주십시오. 가급적 중립적 반응을 나타내는 3번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거의 아니다	조금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한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기분이 처질 때, 잘못된 모든 일을 강박적으로 떠올리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상황이 나에게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은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	1	2	3	4	5
4	나는 내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1	2	3	4	5
5	나는 마음이 아플 때,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6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1	2	3	4	5
7	나는 기분이 축 처지고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세상에는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정말로 힘들 때는, 내 자신을 더욱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감정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0	나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부족감을 느낄거라는 생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11	나는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견디거나 참기 어렵다.	1	2	3	4	5
12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요한 돌봄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대한다.	1	2	3	4	5

번호	문항	거의 아니다	조금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3	나는 기분이 처져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5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어떤 면들을 보면, 스스로 비난한다.	1	2	3	4	5
17	나는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그 상황을 가급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한다.	1	2	3	4	5
18	내가 정말로 힘들게 애를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9	나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5
20	나는 어떤 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내 감정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1	나는 고통을 겪을 때는 나 자신에게 약간 냉담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기분이 처질 때면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내 감정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3	나는 내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대해 관대하다.	1	2	3	4	5
24	나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크게 부풀려서(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5	나는 중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나 혼자만 실패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26	내 성격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견디어내려고 한다.	1	2	3	4	5

부록 5. 일반적 특성 설문지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 해 주세요

1. 성 별 : ① 남 ② 여
2. 학 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출생순위 : ① 혼자 ② 첫째 ③ 둘째 ④ 막내 ⑤ 기타 ()
4.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표시하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자매 ④ 할아버지 ⑤ 할머니
⑥ 기타 () * 직접 적어주세요

※ 4번 문항에 ①, ②번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직장관계로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음.
- ② 부모님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음.
- ③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음.
- ④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음.
- ⑤ 기타 ()

4-2.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 ① 1주일에 1번 ② 1달에 2번 ③ 1달에 1번 ④ 2달에 1번
- ⑤ 1년에 3~4번 ⑥ 1년에 1~2번 ⑦ 만나지 못한다.
- ⑧ 기타 () * 직접 적어주세요

5. 부모님의 연령을 적어 주십시오

- ① 아버지 ()세 ② 어머니 ()세

♣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Major on Counselor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Ulsan
Ko Jung Mi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It, also, examined how covert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grades 1, 2, and 3 in Ulsan. The SPSS 21 and The PROCESS macro 3.3 in Hayes(2018) programs were employed to analyze 705 cases of data collected.

The main results are:

Firstly,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covert narcissism, self-compa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result shows that the correlations among the main variables are positively significant.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appear to be static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while self-compassion is found to be negative correlation to each other'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ly, after verifying the mediated effect of covert narciss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it is found that covert narcissism has a full mediated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irdly, after verifying the mediated effect of self-compassion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 it is found that self-compassion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Fourth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and self-compassion (positive sub-factor/ negative sub-factor) are verified. The result shows that covert narcissism and the positive sub-factor of self-compass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vert narcissism and the negative sub-factor of self-compassion have a full mediated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the need for parenting education are once again confirmed by study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vert narcissism as the cause of interpersonal problems of high school student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higher the covert narcissism, the more interpersonal problems arise, the better the understanding of people who have a tendency of covert narcissism will help to provide effective counseling. And by identifying the mediated effects of self-compassion with adaptive characteristics, we expect more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s will be achieved by promoting the level of self-compassion among teenagers who complain about interpersonal problems and ask for counseling.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need to develop programs to promote self-compassion among teenagers.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Covert Narcissism, Self-Compassion, Interpersonal Problems*